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6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23-27절

설교제목 :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23절에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도’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도’라고 번역된 ‘호도스’는 그 의미가 ‘길’, ‘도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한 도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요14:6) 그런 의미에서 주의 제자들이란 참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23절에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은 예수님을 좇기 위해 받아야 크고 작은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빌1:29) 더욱이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눅6:22)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눅6:23) 따라서 롬8:18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딤후4:6-7) 바울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고난은 장차 자신이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딤후4:8) 그러기에 우리는 **눅6:23**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상태가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중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좇는 자는 비록 세상의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일을 결코 포기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한편, 누가는 24절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의 시발점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 때문입니다.(24절)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였습니다. 은장색이란 은 세공장이를 의미합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데미는 로마의 다이아나와 동일한 신입니다. 아데미는 12개의 유방을 가진 다산과 풍요의 신이였습니다. 이처럼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명물인 아데미 신전과 신의 모형을 은으로 작게 제작하는 사람으로, 이 은장색 일에 종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진 직업이 천해지고, 아데미 신당이 경홀히 여겨지고, 아데미 여신의 신적 위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6-27절)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인 명분일뿐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러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로 번역된 ‘**유포리아**’는 ‘부유’, ‘행복’이란 뜻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로 인해서 부유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자신들의 신상의 판매가 감소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누리던 풍족한 생활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적잖은 소동 역시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풍족한 삶이 위협에 놓였기 때**

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풍족함이 꼭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풍족한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풍족한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풍성한 삶은 우리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그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메드리오는 이상제작자가 아니라 이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풍족한 삶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족한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였습니다. 풍족한 삶이 하나님 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풍족한 삶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족함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삼고,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풍족한 삶이 없으면 못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풍족한 삶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풍족한 삶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삼고, 풍족한 삶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 역시 에베소 사람이나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상숭배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평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만 목적으로 살면서, 오로지 자신의 풍족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자신의 풍족함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상숭배적인 삶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습니다.(26절)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 자신만의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가치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 즉 도를 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짐보다 나누고 섬김으로 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참된 제자는 가진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자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 2)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가 바울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상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누어보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삼지 않고, 가진 것으로 섬김과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